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정지윤	소속(학부/과)	전자 및 전파 전공
파견 학기	2023-2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 응용과학 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저는 대학교에 올라오면서 교환학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들어보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독일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독일이 자동차가 유명한 만큼 공학 부문에서도 많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에서 공부를 하면서 6개월 간 여러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지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출국 전 서류 준비는 하일브론 대학교에서 메일로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로 가기 전까지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비자 발급 예약을 어플로 도와주지만 날짜는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하고 빠른 날짜를 선택하려면 취소표를 잡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을 받으러 갈 때 들고가야 할 서류들이 많은데 빼먹지 않고 들고가야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KISES라는 학생 할인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항공사가 뜨고 날짜와 경유시간, 직항 등을 잘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할인의 좋은 점은 23kg 위탁수하물을 두 개나 허용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이 끝나고 짐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캐리어 절반은 비워서 출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은 문과 이과로 나눠서 컴퓨터실에 모여서 수강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은 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기 전에 수업을 drop할 수 있어서 일단 최대한 많은 과목을 신청해놓고 나중에 수업을 들어보고 선택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숙사 신청은 한국에 있을 때 메일을 줍니다. 그때 보증금과 한 달 월세를 같이 지불하면 됩니다. 기숙사 메일이 두 개 오는데 하나는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는 메일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기숙사의 금액 지불에 관한건데 정해진 기숙사에 사는 것이 가장 싸고 좋습니다. 또한 우리학교는 공대기 때문에 정해진 기숙사와 가장 가깝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하일브론 대학교는 손하임 캠퍼스와 빌둥스 캠퍼스가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공대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을 손하임 캠퍼스에서 듣습니다. 하지만 교양을 신청한다면 빌둥스 캠퍼스까지 가야합니다. 손하임 캠퍼는 작고 기숙사와 가깝습니다. 하지만 빌둥스 캠퍼스는 독일의 다른학교와 같이 쓰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훨씬 크고 기숙사에서 버스를 타고 30분정도 가야합니다. 하일브론의 지리적 위치는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크게 쇼핑을 하거나 이쁜 도시로 갈려면 기차를 타야하지만 조용하고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빌둥스 캠퍼스 주변에 간단하게 쇼핑할 것이 많아서 둘러보면 좋고 한번씩 교양을 들으러 갈 때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독일어 수업, 비즈니스 영어, 마이크로컨트롤러, 공학영어, 디지털 시스템, 랩 프로젝트, 프로그래밍 이렇게 들었습니다. 총 19학점이었습니다. 독일어 수업은 5학점이나 되기 때문에 들으시는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독일어 수업이 다른 나라 교환학생도 많이 듣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쉽습니다. 마이크로컨트롤러, 디지털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거의 1,2학년 때 배웠던 것이라 복습하는 느낌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수업을 듣다 보니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학영어는 교수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따로 시험이 없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영어는 제가 공부를 가장 많이 한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학구열이 뛰어나고 교양 수업이다 보니 외워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PPT를 만들어 발표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랩 프로젝트는 팀별로 하는 것인데 딱히 가르쳐 주는 것이 없고 바로 팀원과 프로젝트를 해야합니다. 저는 라즈베리파이나 우분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3주에 한번씩 성과를 만들어 발표해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27동과 31동이 있습니다. 27동은 깨끗하고 좁은 대신 엘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탁기가 없고 가격이 비쌉니다. 31동은 넓고 약간 오래된 느낌이 있고 엘베가 없습니다. 그래도 1층에 세탁기가 있어 빨래하기에는 좋습니다. 기숙사는 처음에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27동에 살았고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27동의 한 달 월세는 342유로였고 한화로 50만원이 조금 안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31동보다 비싸서 생활비는 훨씬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독일에 가면 처음에 슈페어콘토 계좌에 8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저희에게 130만원정도씩 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유로로 900유로 조금 넘었는데 월세 빠져나가고 보험비 빠져나가면 여행을 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가는 달에는 돈을 더 충전하였습니다. 거의 매주 놀러가고 크리스마스 방학기간과 종강을 하고 한달동안 놀러만 다녀 돈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우리가 유럽을 가장 싸게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유럽학생할인을 많이 하여서 꼭 알아보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독일 마트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해서 외식을 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합니다. 저희는 9월 1일부터 학교에 가느냐 9월 14일부터 학교에 가느냐가 나뉩니다. 9월 1일에 가면 계좌 개설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도와주고 독일어 수업을 합니다. 이 독일어 수업 또한 학점으로 인정되므로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주간 여행을 하고 9월 14일에 학교에 갔습니다. 9월 1일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좌 개설부터 모든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말에 하일브론 근교 소도시에서 버스를 대여해서 데려다 주십니다. 거기서 교환학생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도시 투어를 해주신 다음 자유시간을 주셔서 이곳저곳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저는 보통 맨자라는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친구들과 다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밥 먹다가 출출하면 옆에 작은 카페에서 여러 종류의 빵을 파니까 드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다른 친구들도 도서관이나 자습실을 가기 보단 맨자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친구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편하게 간식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드민턴, 탁구, 배구 동아리에 가서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동아리를 학교 강당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느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숙사와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면서 친구도 사귄 수 있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배드민턴의 경우 토너먼트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외국인 친구들과 놀다 보면 당연히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모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친구에게 잘 말하면 모두가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과 잘 놀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해가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나라별로 억양이나 발음의 차이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대화해보면 익숙해졌습니다. 당당하게 외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유럽은 일 처리가 느리고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걱정하여 처음 유럽을 여행다닐 때는 폰에 줄을 매달아 놓으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심해지면서 폰도 그냥 손에 들고 다니면서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치안은 괜찮았고 우리나라보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아 훨씬 깔끔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1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문화에 대해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행 계획을 짜면서 어느 나라에 어떻게 유명한지에 대해 많이 배웠고 유럽지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절대 혼자 여행을 못할 줄 알았는데 처음이 어렵지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여유롭게 혼자 여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